

II. 음식점

1. 일반사항

- 소재지: 제주도
- 사고일시: 2008년 4월 8일 04시 30분
- 발화장소: 지상3층/지하1층(철근 구조 슬래브 지붕) 건물 중 1층 식당
- 재산피해: 30,960천원
- 인명피해: 사망 5명
- 발화원인: 전기화재 추정



사진 1. 화재 진압하는 소방서 대원들 (뉴시스 인터넷 뉴스)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소방대가 도착하였을 때 지상1층 식당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기와 화염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분출되고 있었고, 2,3층은 불꽃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2층 유리창을 파괴하자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었다. 출동 10여 분만에 1차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을 정리하는 도중 3층에서 숨진 일가족을 발견했다. 건물 내부는 목재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횃집 내부 가운데

설치된 계단뿐이어서 화재가 난 후 일가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음식점 주 출입문 옆에 있는 카운터 벽면 아래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이곳에서 발화된 전기화재로 추정하였다.

3. 피해상황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5명(홍모(44)씨와 부인 천모(41)씨, 18살과 15살 딸, 10살 아들)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사진 2. 3. 제주도 음식점 화재 현장

사진 설명 및 출처

사진 2.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도 삼도2동의 횡집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 깨어진 창문의 유리 등을 떨어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3.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도 삼도2동의 횡집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